



아름다운주님의공동체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사랑과 나눔의 BCJC
균등과 균형의 교육가치를 추구하는 다림교육

2026년 1월 25일 | 주현후제3주

자녀 된 이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요한일서3:18)

기독교대한감리회 아름다운주님의교회 공동사역자 김영석 김진형 김효정 신주환 오미숙 이학재 한창천



2026 아름다운주님의교회주일공동체예배

그릇의 가치는 내용물이 결정합니다.



2026.1.25.

BCJC 소식

환영합니다 | 강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공동체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상관치 않고 주님께 예배함이 기뻐되시는 영혼들 위에 주님의 은총이 충만히 임하는 주일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공동체식사안내 | 오늘 공동체 식사는 ETC목장에서 준비해 주십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귀한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나눔이 식탁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연합 및 성찬예배안내 | 다음주는 공동체 연합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한 가족 예배로 모이는 시간을 위해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월을 여는 첫 주일로 성찬과 함께합니다. 정결과 결단으로 주신 2월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연말정산서류발급안내 | 2025년 연말정산서류가 필요한 신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교회 밴드를 확인해 주세요.

축복의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해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4:6-7

아름다운어린이예배

매주일오전11시 | 교회학교실

목장모임

매주일오후1시 | 교회모임실

다림교육

매일 | 다림교육센터

매일묵상

매일오전5시

그릇의가치는내용물이결정합니다.

사도행전 9:15~16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목장나눔

나눔1. 혹시 물건을 살 때 포장이나 예뻐서 샀는데 내용물이 실망스러웠거나, 반대로 겉보기엔 허름한 식당이었는데 맛이 기가막혔던 ‘반전의 경험’이 있으신가요? 겉모습과 속이 달랐던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가볍게 나눠주세요.

(청소년용 나눔 : 너희는 겉모습이 더 중요해? 속 마음이 더 중요해? 한번 돌아보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너희는 속마음을 보여주길 더 바랬어? 아님 겉모습을 포장하는 것에 더 집중했니? 솔직히 말해볼까?)

나눔2. 설교에서 심리학 용어인 ‘후광 효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외모나 학벌 같은 겉모습이 좋으면 그 사람의 성격까지 좋을 거라고 착각하는 현상이죠. 나는 평소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먼저 보나요? 최근 누군가를 첫인상이나 겉모습(직업, 차, 옷차림 등)만 보고 선불리 판단했다가 “내가 틀렸구나” 하고 깨달았던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청소년용 나눔 : 설교에서 세상은 자꾸 “너는 금그릇이니, 흙그릇이니?” 하고 묻는다고 했어. 학교나 친구들 사이에서 성적, 외모, 옷 브랜드, 집 평수 같은 ‘겉모습(스펙)’ 때문에 스트레스받거나 기죽었던 적이 있니? “이것만 있으면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될 텐데”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솔직하게 말해볼까?)

나눔3. 아나니아는 사울의 과거와 폭력적인 행동만 보고 그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모습 너머에 담길 미래를 보셨죠. 지금 내 주변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고, 피하고 싶은 ‘사울’ 같은 사람이 있나요? 만약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나의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신다면, 내가 그를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또 나는 어떤가요? 되는 것도 없고 앞으로도 가망이 없어 보이나요?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릇으로 지금 빚고 계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청소년용 나눔 : 아나니아는 사울을 보고 “저 사람은 위험한 폭력배예요!”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전할 택한 그릇이야”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능성을 보신 거야. 혹시 학교나 교회에서 겉모습이나 소문만 보고 “쟤는 안돼”, “쟤는 별로야”라고 친구를 판단한 적 있어? 반대로 내가 억울하게 판단받았던 적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의 어떤 숨겨진 가능성을 보고 계실까?)

나눔4. 사울은 3일 동안 눈이 멀어 식음을 전폐하며, 자신 안에 가득했던 ‘살기’와 ‘자아’를 비워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꽂차 있는 세상의 것들을 비워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 그릇에 ‘예수님’ 대신 꽂차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자존심, 염려, 미움, 세상의 성공 등) 이번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쏟아버려야 할 ‘독소’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청소년용 나눔 : 아무리 비싼 명품 컵이라도 안에 독약이 들어있으면 ‘독약 그릇’이고, 독배기라도 보약이 들어있으면 ‘보약 그릇’이래. 중요한 건 내용물이야. 지금 내 마음(머릿속)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물’은 뭐야? 솔직히 지금 내 상태는 어떤 그릇에 가까운 것 같아?)

나눔5. 예수 그리스도를 내 그릇에 채운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주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분노, 화, 헛된 말, 다툼 등을 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이해가 넘치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채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하는 이유죠. 내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 내 안에 사랑이 채워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나를 주님이 쓰시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기 전에 여러분은 내 안에 기쁨과 사랑, 은혜와 믿음을 채우셨나요?

(청소년용 나눔 : 성경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지만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쓴다고 하셨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더러운 컵에 물을 마실 순 없잖아. 그렇다면 깨끗해 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쓰시고 싶은데, 내 안에 버려야 할 ‘더러운 것’들이 있다면 뭘까? 진짜 내 안에 채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나눔6.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시겠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가 결단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청소년용 나눔 : 오늘 말씀에서 너희가 배운 점은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말할래?)